

2, 脆弱한
漁港
그
實狀



늘어난 漁船勢力 감당못해

크고 튼튼한 漁港 시급

黃 貴 煥 (韓國水產新報·編輯副局長)

수산업은 '하느님과 합작하는 사업'이라 이르는 까닭은 그만큼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다. 아무리 사람이 달나라를 오가는 세상이라지만 바다는 아직도 인간의 의지와 문명을 거부한다.

때문에 바다는 인간의지의 마지막 시험장인지 모른다. 그보다 바다는 마지막 「자아의 보고」로서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데 더 큰 매력이 있다.

수산업을 비롯한 광물 에너지 레저등의 무진장한 보고로서 바다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되고 있다. 확실히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임이 틀림없다. 해양종합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도 그때문이다.

그러나 바다종합개발의 의지가 실천되려면 막대한 예산과 오랜세월이 투자돼야 한다. 그래서 바다로 한꺼번에 성급하게 뛰어들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적

으로 손쉽게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는게 현명하다.

그게 바로 수산업이다. 수산업만큼 투자가치가 크고 손쉬운건 아직 바다엔 없다.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중에서도 수산업만큼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수산업은 어떤가. 자원은 무진장하고, 그래서 잡기만 하면 되는양 모든 수산정책이 생산위주로 펼쳐진 결과 자원고갈이라는 일대위기사 직면하고 말았다. 어디 그 뿐인가. 늘어나는 어선세력을 뒤따르지 못하고 어항시설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우리나라 어항은 1천9백41개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수산청이 관리하는 1·3종항이 61개소, 3백25개항은 시도가 관리하는 2종항이다. 이밖에 1천5백55개소는 어항법과 무관한 어촌부락단위의 소규모 항으로서

보잘것 없다.

근 10만척을 육박하는 어선 세력을 감안할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같은 태부족한 어항시설을 보면서 서울의 교통난을 연상한다. 도로와 주차능력을 감안하지 않은채 자동차만 늘린 나머지 오늘날 겪는 교통난은 가히 「교통전쟁」이며 「교통지옥」이라 할만하다.

대도시의 심각한 자동차 주차난에 이어 바다의 어선 정박난 또한 심각하다. 배 댈곳이 없어 며칠씩 위판을 못하고 기다리는 현상을 연안곳곳에서 빚어진다. 목숨까지 걸고 애써 잡은 고기가 제값에 팔리지 못함으로써 어민들은 이만저만 피해를 입는게 아니다.

어항부족현상은 이처럼 재산상의 손실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한다. 갑자기 태풍이라도 불어타치는 날이면 배댈곳이 없어 아우성이다. 어선이 어항이 없으면 파도치는 바다에 떠돌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뻔한 노릇이다.

비좁은 어항에 서로 먼저 들어오려다 부딪쳐 깨지고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고를 우리는 매년 태풍때마다 경험한다. 어선에 있어 어항은 집이다. 하루종일 일하고 안락하게 쉬어야 할 집이 있어야 하듯 바다에 나간 어선은 안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어항이 있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어항부족현상은 대도시의 자동차 주차난과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야 주차시설이 없으면 길바닥에라도 서 있으면 되지만 어선은 배댈곳이 없으면 목숨을 잃는다.

이 세상에 바다만큼 위험한 사업장은 없다. 같은 1차산업이면서도 광부는 지붕이라도 있고 농민은 바람불고 비오면 가까운 피할곳이라도 있다. 그러나 어민은 바람부나 비가오나 출거나 덩거나 망망대해를 떠나지 못한다.

때문에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가깝고 손쉽게 대피할수 있는 어항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어선에 있어 어항은 단순한 안락처 이상의 생명보호수단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颱風땀 生命도 危脅

해마다 태풍때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생명이 희생되는가를 우리도 체험했다. 그러나 안타까운건 같은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인데도 육지의 사고와 바다의 그것을 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육지의 농작물피해와 도로유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몇명만 죽어도 신문과 방송이 떠들썩하고 정부와 국민들도 야단법석이다. 간단함으로 몇년전 중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졌을때 나라 전체가 복구니 구호니 하면서 흥분할때도 수산피해와 어민희생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두고 어민들은 “어민재산은 재산이 아니고, 어민목숨은 목숨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같은 태풍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의 대표라도 선량들마저 농업·농민쪽에는 열을 올리면서 수산업과 어민한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못살고 위험한것도 슬프고 안타깝거늘 관심마저 주지 않으니 어민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존재인

어항은 많이 시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매년 태풍때 부서지는 어항 가운데는 만든지 1~2년밖에 안되는 것들이 수도룩하다는건 무엇을 뜻하는가.

지역별 인배나 수량위주의 실적행정을 지양하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어야 한다는 중요성은 어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측면뿐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나아가 이제 어항은 기본시설만 갖추면 되는 시기가 지났다. 그 지역사회의 쾌적한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어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기능뿐 아니라 예술성까지도 겸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예 힘입어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의식은 「밥만먹고는 못산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같은 음식이라도 맛과 영양을 따진다. 이왕이면 크고 성능도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같은값이면 보기좋고 편리한 집을 택하는 세상이다.

일자형 한강다리가 아치형으로 바뀌고 연육교도 사장교로 건설된다. 기능차원을 넘어 예술성까지도 가미되는 실정이다. 같은 값이 아니라 돈을 더 들여서라도 미관과 예술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 모두가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어항도 언제까지고 기능만 강조될 일이 아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과 예술성을 겸비한 어항건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항실정으로서 이같은 바램은 아직 욕심에 불과한지 모른다. 마치 셋방살이도 면하지 못한 마당에 자가용 갖기를 바라는 격인지 모른다. 자가용은 커녕, 삭월세방이라도 세집을 꿈꿔야 하는 실정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내집을 갖고, 그런다음에야 자가용 욕심을 낼 만큼 지금 우리의 어항시설은 「삭월세」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 어민들은 우선 손쉽게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아가 크고 튼튼하고 예술적으로 지어진 어항을 기대하는 형편이다.

어항은 어선과함께 수산업의 기본시설이다. 어차피 정부가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자원조성과 어선의 대형 및 현대화와 함께 어항시설은 수산

업의 3대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자원이 많고 이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이 대형화 되고 장비가 현대화 돼도 어항이 없거나 부족하면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더우기 어항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어민 입장에서만 강조될 성질이 아니다.

수산업은 어민만의 몫이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어항은 어민에게 있어 집이다.

아직 집한칸 없는 마당에 수산선진국이니 복지국가 건설이니 하는 말은 적어도 어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어민은 일단 스스로 살기 위해 바다와 싸우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항건설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바야한다.

“광산의 직업환경개선책이 강구되고 있고 농업진흥책이 쏟아지는 바다에 어업환경개선책을 마련하는데는 그토록 인색하냐”는 어민들의 지적을 정부는 한낱 불평 불만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봐

야한다. 4백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1인당GNP가 4천달러를 육박하면 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까지 유치한 마당에 어민들은 아직 어항이 부족한 실정을 개탄하는 현실은 확실히 모순이다.

국민화합과 복지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정부는 이를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그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화합과 복지사회건설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라야 가능하다. 사업간의 균형, 계층간의 소득차를 좁힘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은 가능하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양분되고, 그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총체적으로 잘산다고 해봐야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실감이 나지 않는법이다. 마치 빵 두개를 먹는사람과 한개도 못먹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하나씩 먹더라도 수학적등식만으로도 진정한 국민화합과 복지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동안 국가경제성장의 뒤안에서 발전이 뒤지고 소외당했다. 수산업과 어민을 위해 수산을 보는 정부의 시각과 자원은 새롭게 과감해야 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어항시설 확충이다. 어항은 어민에게 있어 집이다. 아직 집한칸 없는 마당에 수산선진국이니 복지국가 건설이니 하는 말은 적어도 어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